



보도 일시	2023. 11. 30.(목) 16:00	배포 일시	2023. 11. 30.(목) 16:00
담당 부서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	책임자	과장 한승철 (054-740-7540)
		담당자	주무관 이성현 (054-740-7570)

국립경주박물관, 경주 지진 피해 없어

- 최신 면진 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재 보호 -

□ 국립경주박물관, 2023년 11월 30일 오전 4시 55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에 문화재 피해 없어

국립경주박물관(관장 함순섭)은 오늘 새벽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4.0의 지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지진이 발생한 이후 긴급점검을 통해 국보 '성덕대왕 신종'을 포함해 천마총 금관, 고선사 터 삼층석탑, 백률사 약사여래 등 주요 지정 문화재의 피해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국립경주박물관은 관람객과 문화재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면진 성능 개선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전시실 내 설치된 면진시스템은 지속적인 검증과 실험을 통하여 규모 8.0 이상의 지진에서도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신 기술로 적용하였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관람객 여러분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선사 터 삼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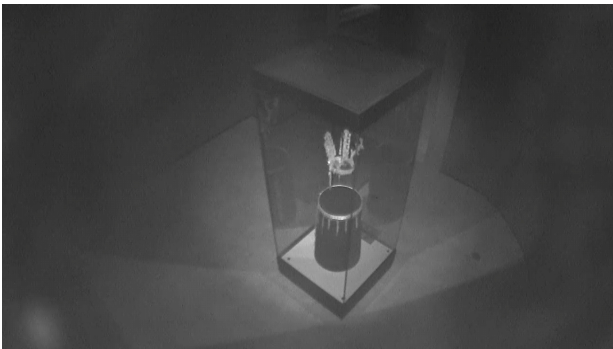
육안으로 보이는 피해 없음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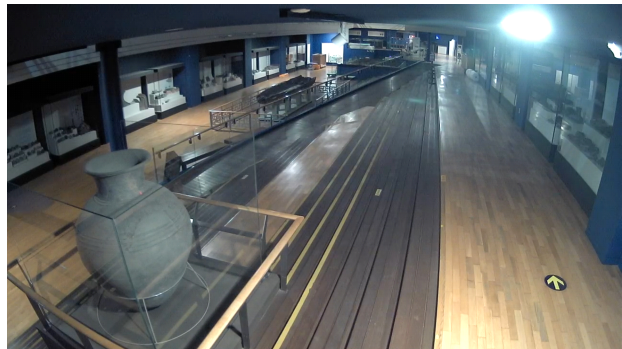
4시 55분 8초경 천장 먼지 떨어짐

천마총 금관



4시 55분 17초경 움직임 보임

월지관



육안으로 보이는 피해 없음

성덕대왕신종



육안으로 보이는 피해 없음

신라천년보고



육안으로 보이는 피해 없음